20121102 제17회 국제명원차문화대상

격 려 사

전국 400만 차인들의 뜻을 담아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과 한국다도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명원차문화대상'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인 차문화는 삼국시대를 원류로 사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 차와 관련된 유물과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남도 지역의 많은 사찰에서는 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사부대중은 생활 속에서 차와 함께하며 정진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한국 차의 명맥은 몇 차례 단절될 위기도 있었지만, 1980년 명원 김미희 여사가 국내 최초로 한국전통다례의식을 발표하고 묵묵하게 차문화 계승을 위하여 원력을 실천한 일은 큰 공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사원다례 복원에 열의를 가지고 경봉, 효봉, 일타, 도광, 법정 스님 등 전국 각지의 고승들을 직접 찾아뵙고 차를 연구하였으며 사찰에서 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제방에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주상 보시와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차문화복원에 힘써주신 명원 김미희 여사의 공덕은 한국 차의 성지라 불리는 일지암 복원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명원문화재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명원문화재단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의정 이사장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과 함께 은은한 차의 향기를 우리에게 쉼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대한 원력으로 이어 내려온 명원문화재단의 '제17회 국제명원문화대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차문화 발전과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전통문화 보전의 대들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